

<p>< 교 훈 > 새로운 생각 · 더 나은 꿈 · 나누는 삶</p>	<p>가정통신문</p>	<p>김제여자고등학교 ☎ 544-2512</p>
--	--------------	--------------------------------

2025학년도 사이버 폭력(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항상 본교 교육활동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학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근 디지털 환경의 확산과 함께 사이버 폭력, 특히 딥페이크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가 청소년들에게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에 본교에서는 학생들이 올바른 디지털 시민의식을 갖추고, 성폭력에 대한 민감성과 대응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사이버 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학부모님께서도 자녀의 디지털 환경과 이용 습관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본 교육의 취지를 이해하시고 함께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디지털 성범죄의 위험성과 예방 방법에 대해 자녀와 함께 이야기 나눠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딥페이크와 디지털 성범죄]

딥페이크란

딥러닝(Deep Learning)과 페이크(Fake)의 합성어로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해 사람의 얼굴이나 목소리를 조작하여 실제와 거의 구별하기 어려운 가짜 영상이나 음성을 만드는 기술을 의미

디지털 성범죄란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상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을 의미
오늘날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의 발생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

□ [디지털 성범죄 사례 및 처벌]

<사례 1>	청소년 A군은 여학생의 얼굴을 합성해 딥페이크 음란물을 만들어 친구들과 돌려본 뒤 삭제하였다 고 진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 영상물 등의 반포 등) 적용하여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	
<사례 2>	청소년 C군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저장된 링크를 전송받았고, 링크를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 메모

장에 저장하였다고 진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에 의거 **아동·청소년 대상의 영상은 다운로드 및 소지, 보는 것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이 아니더라도 피해 영상물을 다운로드 하거나 보는 것 또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확산하는 2차 가해 행위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등) 적용하여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

<사례 3> 청소년 P군은 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물(이른바 유포물)을 **구매**하여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 사진첩에 **동영상을 내려받았다**고 진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한 **불법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하는 행위는 모두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 및 불법촬영물 유포·유포협박·저장·전시 등은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로 현행법으로 처벌되고 있는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 이용 촬영물 소지 등) 적용하여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

□ [이것도 디지털 성범죄?]

학교 친구의 다리와 엉덩이를 몰래 장난으로 찍었다. 저장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바로 지웠다면 범죄가 아니다?

범죄입니다. 영상을 저장하지 않더라도 당사자의 동의 없이 신체부위를 촬영할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장난으로 친구의 얼굴을 다른 사람의 몸에 합성하여 단독에 올렸다. 단순한 장난인데 처벌받나요?

처벌을 받습니다. 사람의 얼굴, 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 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하는 행위는 범죄에 해당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2」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1항 2항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이것을 영리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2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3항」 영리목적에 해당하여 7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몰래 찍힌 사진, 몰래 유포한 영상 등을 다운로드하거나 보기만 하는 것은 죄가 아니다?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디지털 성범죄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하거나 보는 것 역시 불법촬영, 유포와 마찬가지로 명백한 가해 행위입니다. 피해촬영물 소지·구입·저장·시청이 만연하다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가장 원치 않는 ‘유포’는 근절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사진과 영상을 실제 유포하진 않고, 겁만 주려고 유포하겠다는 협박해도 범죄에 해당될까?

범죄입니다. 실제 유포 의도가 있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언행이 피해자에게 실제적인 위협이 된다는 점을 알고 있다면 이는 범죄에 해당합니다.

□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만남 요구	낯선 사람이 오프라인에서 만나자고 할 때 ➡ 만남 거절하고 대화 중단하기 랜덤 채팅 앱에서 대가성 만남을 요구할 때 ➡ 응하지 않고 캡처해서 신고하기
불법촬영·합성 영상 유포	화장실 등에 의심스러운 물건이 보일 때 ➡ 즉시 112 신고하기 불법촬영이 의심될 때 ➡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고 즉시 112 신고하기 몸 사진을 보낸 후 유포하겠다고 협박 받았을 때 ➡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고 즉시 신고하기 지인이 합성된 사진·영상을 봤을 때 ➡ 당사자에게 알리고 신고 도와주기
성적 문자·영상 전송	친구가 올린 성적인 영상을 보고 불쾌할 때 ➡ 불쾌함 표현하기, 대화 중단·신고하기 성적인 욕설, 몸 사진·영상을 봤을 때 ➡ 대화 중단·신고하기 SNS에서 성적인 영상을 봤을 때 ➡ '신고/스팸' 누르기, 다른 곳에 게시하지 않기 몸 사진 전송을 요구 받았을 때 ➡ 절대 응하지 않기, 대화 중단하기

□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발생했다면]

피해 신고	① 긴급 신고 112 safe182.go.kr	② 학교 구성원 피·가해의 경우 (학교폭력신고센터) 117 (학생 피해자의 경우)	③ 방송통신심의위원회 1377 www.kocsc.or.kr
피해 상담	① 피해 촬영물, URL 등의 증거 확보 ※ 원본 확보가 가능해야 삭제 지원도 가능합니다.	② 상담신청 전화: 063-236-1366 여성긴급전화: 1366	③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삭제 요청 ※ 온라인상 피해촬영물이 유포되었다면 '삭제지원'을, 유포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라면 '유포 현황 모니터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5. 7. 7.

김제여자고등학교장 <직인생략>